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럭키**] 이다

주변인들이 푸근하고 사랑스럽다고 '곰돌이 푸', 구수한 면이 있다고 '누룽지' 등으로 부르지만,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럭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 젊음을 불태웠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근무하고 있으니깐요. 이 행운을 주위에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든 사람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기준이 한정된 상태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 조직, 그리고 함께하는 선배님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차기삼 대전세종충남본부 송전운영부 차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am

20
24
04
april
vol.610

긍 정 적 으 로

P O S I T I V E

열 정 적 으 로

소 통 한 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이를 이어주는 빛
우리는 그 빛을 만들고 전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만든 어둠을 헤치고
땀과 눈물로 만든 빛을 이어갑니다.
강인하고 올곧은 빛을 연결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통권 610호 2024년 4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4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세상을 바꾸는 힘, 연결
10	TIMELINE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고 협력해야 할 때”
12	K-INFO
	KEPCO CODE
14	LIGHT
	2024년을 경영정상화의 원년으로
18	FOCUS
	한전 디지털전환(DX), 비용 줄이고 국민 편익 증진한다!

20	KEEPER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단위 분산에너지의 시대를 연다! 배전계통사업실 TF를 만나다
22	SITE
	하늘 아래 첫 도시 태백의 빛을 지키는 사람들 태백전력지사
26	GREENSIGHT
	전북본부 직원과 함께하는 ‘봄꽃 맛이 플로깅’
30	VIEW
	스치듯 지나가는 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길

32	CURATION
	짧은 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봄꽃 명소
34	MIND&U
	당신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인의 불안장애
36	WIDE
	세상을 움직이는 길을 찾다 ‘툼툼’의 비결
38	TALK
	KEPCO 일잘러를 위한 영화 <툼: 파트2>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기

42	K-CREATOR
	‘숏~ 골인’ 온몸을 감싸는 카타르시스, 풋살
44	MAGAZINE P
	하늘을 유영(遊泳)하며 오늘을 만나다 북포항지사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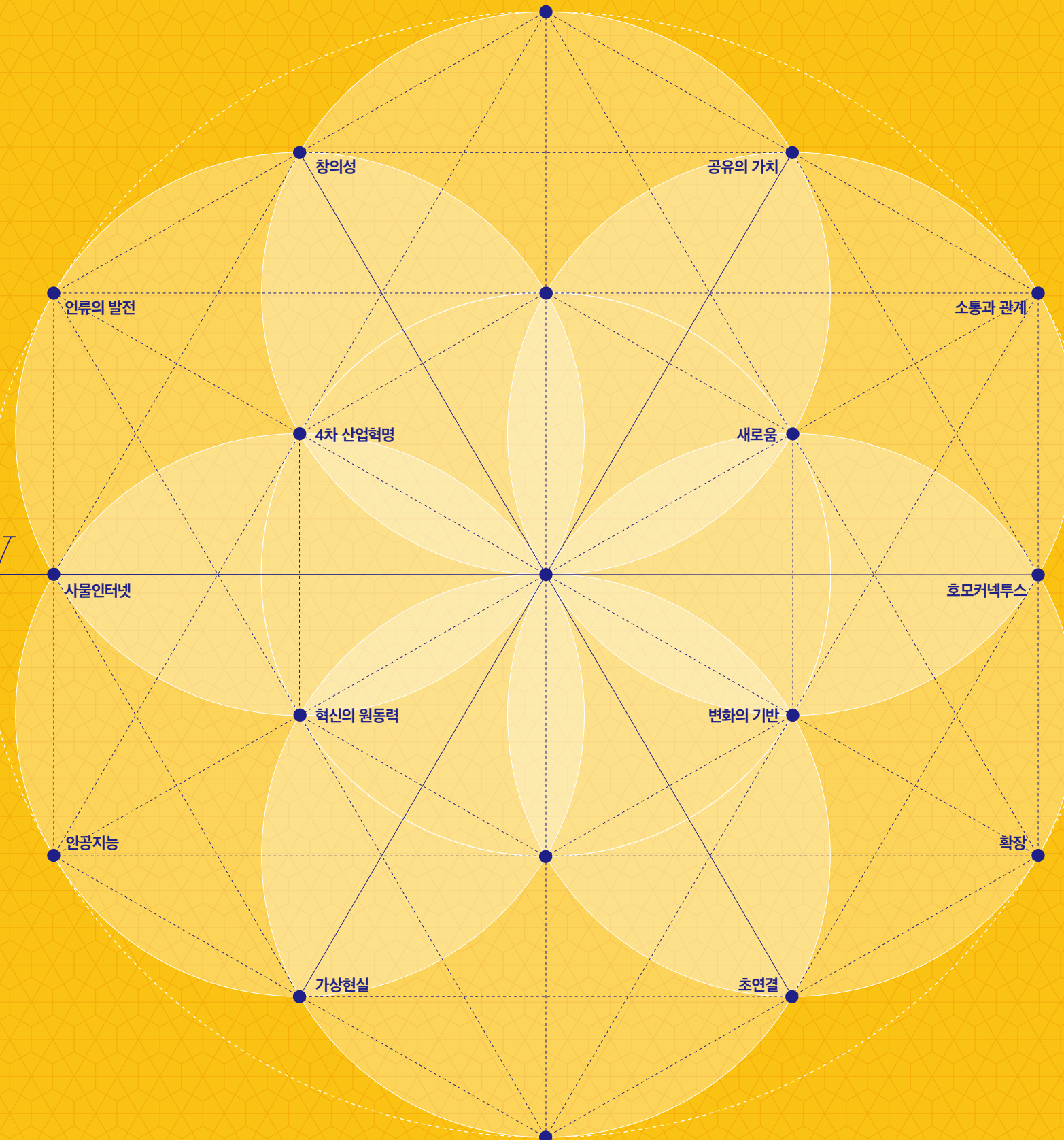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힘

연결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연결(連結)'.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Connectivity

무궁무진한 연결의 힘



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는 시대에서 연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연결'의 힘에 주목하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힘, 연결

'연결'은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혁신은 더 이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연결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연결'이 만들어낸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연결된 세계는 차량 탑승, 숙박, 배달, 세탁, 뷰티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해 새로운 시장과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혁신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혁신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에서 온다. 메신저와 인공지능을 연결해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 낸다. 검색이나 상거래를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다. 음성 인식과 가상현실, 자동차 등을 연결해 새로운 물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간은 호모커넥투스(Homo Connectus)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사물이 인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사물 간의 연결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연결의 힘은 한계가 없는 듯하다. 연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연결'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한전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다중환상망(Multi-loop) 형식의 신뢰도 높은 송변전 계통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전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송변전 분야의 경우 세계 최초의 765kV 2회선 송전선로 건설을 비롯해 최신의 각종 변전소 설계·시공 기술 등을 확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을 빛으로 잇는 한전의 전력망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한전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빛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한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765kV

한전은 345kV 송전선로와 154kV 송전선로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기존 송전망에 1990년부터 단계적으로 미래 기간망인 765kV 대전력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송전망의 손실감소와 설비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FACTS, TCSC 등 최신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765kV 격상 사업은 각종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으로 국내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미래 전력망 HVDC

한전은 1998년부터 제주 지역과 내륙의 전력 연계를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인 HVDC 송전계통을 건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765kV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과 중부 지역 발전력 유통을 위한 북당진-고덕 간 500kV급 HVDC 사업과 육지-제주 간 전력계통 연계 강화를 위한 #3HVDC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HVDC를 미래의 핵심 전력 기술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동향에 발맞춰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유지보수, 컨설팅 전 과정에서 독자적인 HVDC 기술과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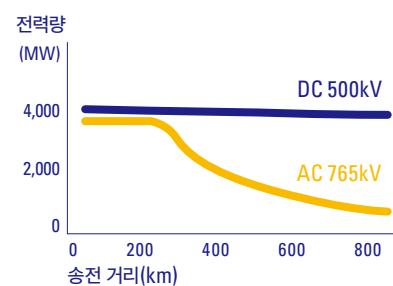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기술, 765kV

대전력 송전망 765kV	건설 소요 용지 최소화	대규모 전력 수송 용이	전력 손실 감소
총 7개 선로, 길이 총 551.6km	345kV의 53%	345kV의 3.4배	345kV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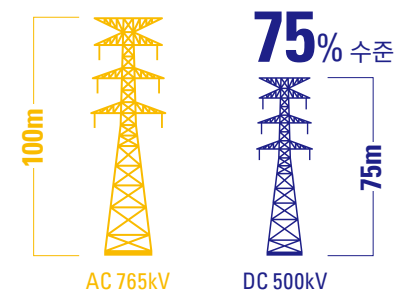
내일로 나아가는 힘, HVDC

장거리 전력 전송에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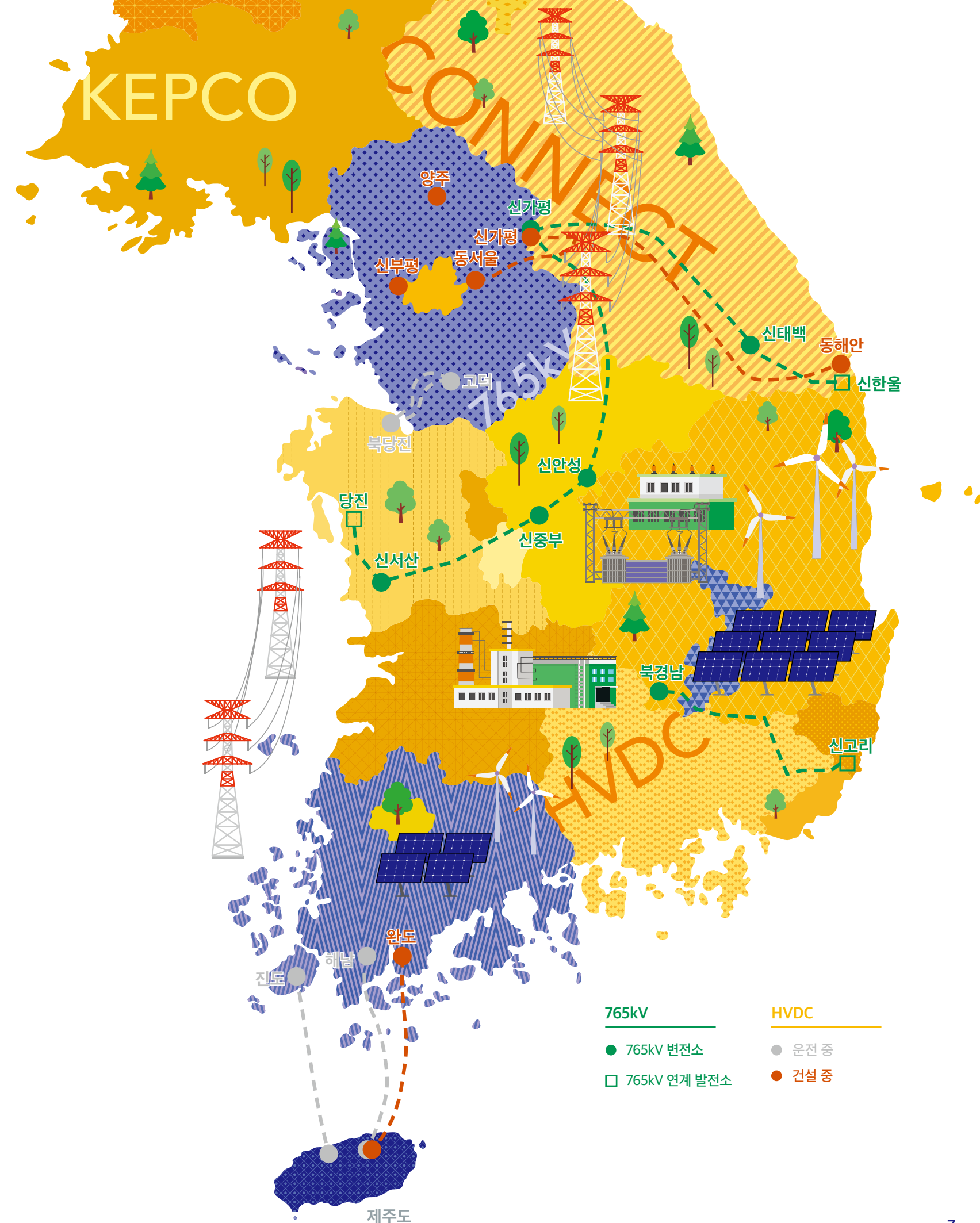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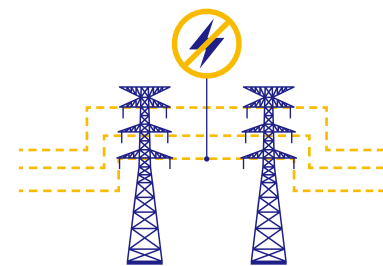
가공선로의 AC와 DC 송전 용량 비교



철갑 규모 축소



전자파에 영향 없음



연결은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고,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연결의 주체로서 세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터. 제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형 HVDC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전력지사 HVDC TF 변환1팀을 만났다.

특별한 ‘연결’을 만드는 사람들

강진전력지사 HVDC TF 변환1팀

“HVDC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사적으로도 몇 없는 전력 설비입니다. 노하우나 정비 절차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윤재식 차장



“HVDC를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에도 몇 군데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전밖에 없습니다. 한전 내에서도 HVDC 운영 업무를 하는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HVDC에 대해 잘 아는 전문 인력이 적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 박주홍 대리

“해남-제주 HVDC와 진도-서제주 HVDC를 통해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0% 가량을 부담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저의 노력으로 전기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 한창엽 대리

“전기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한전 업무는 작게는 옆에 있는 팀원, 크게는 회사의 직원들이 연결되어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승환 대리



“HVDC 시스템은 특수 업무이기에, 신입으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팀 연령대가 낮은 만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 천수영 대리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고 협력해야 할 때”

현장 경영 광폭 행보 재개 전국 사업소 대상 ‘CEO 현장 소통설명회’ 돌입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현장 경영이 다시 기지개를 켜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 소통설명회는 김동철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며, 한전이 직면한 경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결집과 변화·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첫 설명회가 열린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담양지사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해 경영 현안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고, 김동철 사장이 직접 재무 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이후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핵심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유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열띤 토의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순환근무 제도 개선 등 현장 업무 개선 아이디어 및 신규 사업 아이템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김동철 사장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한전의 내부개혁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본사부터 사업소까지 신속히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 접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전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경영을 재개하고 봄철에 빈번한 산불에서 산불 예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한전의 부지런한 행보를 따라가 본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할 것” 산림청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과 산림청은 3월 15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산불 예방 및 전력 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과 산림청은 산림 보호 및 산불 대응 상호 체계를 구축해 전력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은 매년 약 567건이며,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은 매년 약 7건 발생했다. 송전선로 인근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송전철탑의 78%인 약 3만 2천여 기가 산지를 통과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한전과 산림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 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중요 전력 설비 보호를 위한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 ▲전력 설비 관리인력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설비보호를 위한 우선 진화 ▲한전 감시카메라(CCTV) 영상 공유 및 송전 철탑 활용 CCTV 설치 협력 ▲전력 설비 주변 산불위험목 관리·제거 및 산불 예방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향후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를 구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EPCO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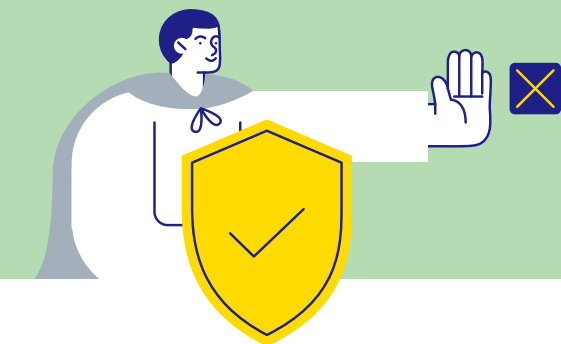
KEPCO의 코드는 무엇일까?
노사협력처에서는 KEPCO의 문화를 표현하는
10가지 핵심 코드를 지난해에 이어 선정했다.
올해 조금 더 진화된 KEPCO CODE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자.



청렴·윤리

청렴한 행동으로 신뢰받는 한전을 만들어요

- 업무 전반 윤리의식 자가점검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4대 폭력 예방 교육



책임감

내 일을 열정으로 몰입합니다

- 내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할 일은 상급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행
-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



리더십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 실무자에게 권한 부여, 리더는 책임회피 지양
- 리더의 행동과 인식전환으로 구성원들의 변화 촉진



감사공정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 노사합동 상호존중 감사의 날(매월 11일) 캠페인 시행
- 감사 메시지 보내기를 통한
칭찬·협업 문화 확산



조직활력

사기진작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요

-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협력과 팀워크 향상
- 역량향상 학습조직, 유대감 향상을 위한 동호회 활동



소통활성화

의견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 수평적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양성
- 직급·세대·직군·성별에 관계없이 의견 경청



업무효율

덜어낼수록 빨라집니다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생산성 향상
- 일방적·비효율적 회의문화 개선, 전자공통 지침 마련



상호존중

존중·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요

- 비즈니스 에티켓 준수 캠페인 (인사, 전화예절 등) 시행
- 상호 간 존칭 사용 및 권위주의적 관행 개선



동기부여

We Build KEPCO

- 왜, 무엇을, 언제까지 등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전달
- 성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동료와 공유



안전문화

Safety First!

- 주니어보드 참여 안전문화 정착 콘텐츠 제작
- 안전 테마별 정기문자 발송,
안전장구 체크의 날 운영



지난 2023년 한전은 6.5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별도 기준). 세 차례에 걸친 요금조정과 함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지난 2022년 기록한 33.9조 원의 영업손실을 불과 1년 만에 27조 원 이상 개선한 것이다. 4분기에는 1.4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년간 누적된 대규모 적자의 영향으로 작년 말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위기를 겪기도 했으며, 매일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약 100억 원에 이른다.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경영정상화의
핵심은
이익회복

2023년, 별도 기준으로 한전은 약 6조 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약 33조 9천억 원의 영업손실에 비해 27조 원 이상 호전된 실적이다.

전년 대비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작년 1월, 5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26.0원/kWh 인상해 연간 전기판매 수익이 약 16조 8천억 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판매량은 전해에 비해 0.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26.8% 상승하며 매출액이 약 25%가량 증가, 향후 안정적인 수익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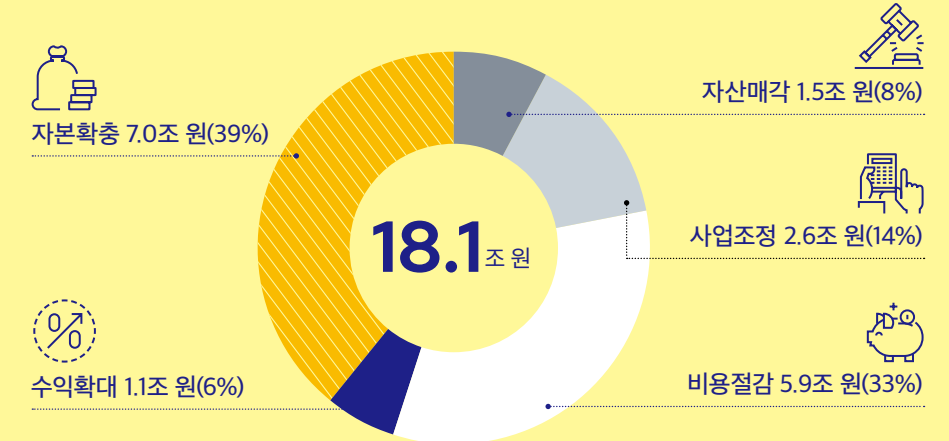
두 번째로 연간 구입전력비가 전해 대비 약 10조 7천억 원 감소했다. 2분기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력 구입 단가가 10% 이상 하락했고, REC 단가 하락으로 RPS 비용 또한 15% 이상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와같이 손익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재무 실적이 점차 호전되었고, 4분기에는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해 향후 재무 전망을 밝게 했다.

01

**약 3.9조 원의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차입금
감소에 따라 이자
비용을 약 0.2조 원
절감하는 등,
손실 규모를
총 4.1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고,
부채비율을 약
265% 감축했다.**

재정건전화계획 확대 목표



재정건전화 확대 계획 본격 가동해 부채비율 약 265% 감축, 4분기 흑자 전환 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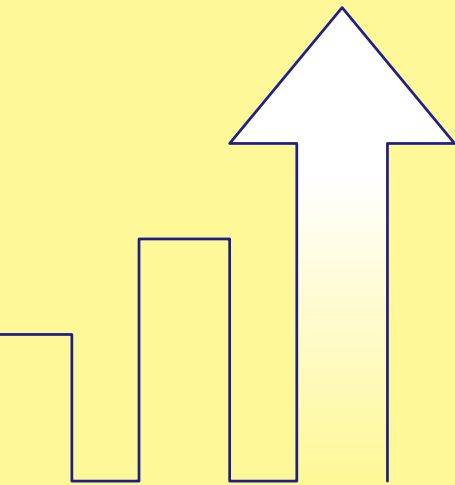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은 지난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한전은 지난 2022년 8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무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한 5개년 14.3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초 불충분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불안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재무 전망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3.8조 원 목표를 추가한 18.1조 원의 재정건전화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재무개선 노력을 가속했다.

자산매각 분야에서는 추가 매각 대상 발굴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목표를 확대했고, 사업조정 분야에서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시 2027년 이후로 준공 시기가 변경된 사업의 공정조정을 통해 약 0.1조 원의 투자비 추가 절감을 목표로 했다. 비용절감 분야에서는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8건의 정책 발굴 및 관철을 통해 구입비 절감 목표를 약 3조 원 확대했고, 구입비 외 비용절감 목표 또한 약 0.7조 원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수익 확대 분야에서는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표준시설부담금 추가 조정을 통해 0.1조 원의 목표를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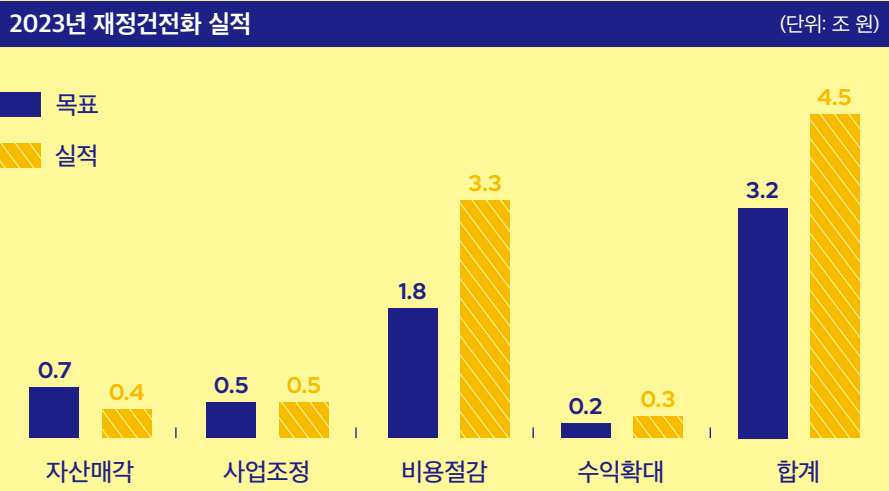
재정건전화계획의 목표 확대와 동시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점검 TF를 구성했고, 매월 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전사 역량을 총 결집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목표의 142% 수준인 4.5조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자. 먼저 자산매각 분야는 경기침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행 여건이 매우 어려웠으나 다양한 매각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공기업 최초로 부동산 매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매각 대상 부동산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출자지분 매각에 있어서는 지분 대량매각에 따른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한전기술 지분매각에 PRS를 전격 도입해 성사시켰다. 2023년 부동산 7개소의 매각과 한전기술 지분매각 등을 통해 0.4조 원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했다.



02

총 3조 2천억 원의
중간배당을 시행해
자본을 확대하고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업조정 분야에서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투자 소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법 적용, 기준 개선, 전력사업 외 비필수 사업 시기 이연 등을 통해 0.5조 원의 투자비를 절감했다.

비용 절감 분야에서는 석탄발전감축제 완화, 긴급정산상한제 시행 등 시장제도 개선 과제 7건의 시행을 통해 2.7조 원을 감축하고 예산 절감 목표 상향 및 4분기 예산 회수 등 초긴축 예산운영을 통해 구입비 외 비용 0.6조 원을 절감했다.

수익확대 분야에서는 1전기사용장소 2전압 공급기준 신설 등의 기준 개선과 표준시설부담금, 배전공가 이용요금 등의 단가 현실화를 통해 전기판매수익 외 수익 0.3조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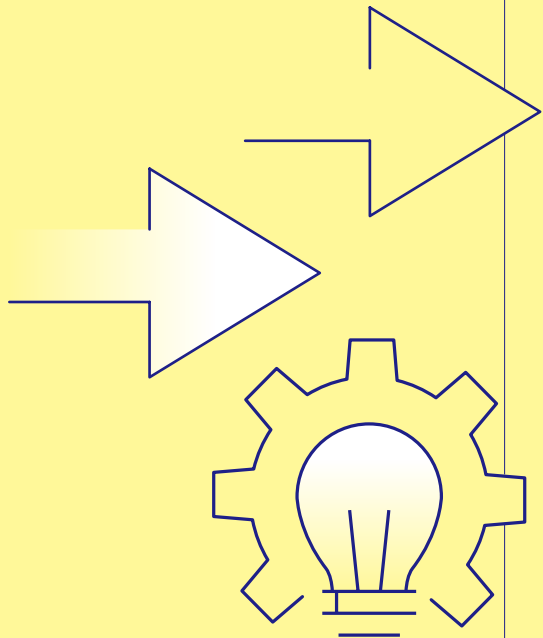
이같은 노력을 통해 약 3.9조 원의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차입금 감소에 따라 이자 비용을 약 0.2조 원 절감하는 등, 손실 규모를 총 4.1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고, 부채비율을 약 265% 감축했다. 또한 4분기 흑자 전환을 견인하며 2027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전의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가능케 했다.

추가 자구대책 수립과 중간배당 시행으로
초유의 디폴트 위기 극복

재정건전화계획의 목표 확대 및 충실한 이행 외에도, 한전은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자구 대책을 수립하며 조기 경영정상화 달성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먼저 작년 5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발표한 추가 자구안에는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 및 한전아트센터 3개 층의 임대와 임금반납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남서울본부는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재개발을 현재 추진 중이며, 한전아트센터는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3개 층을 확보한 후 우선 2개 층의 임대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직급 이상 임금인상분을 반납한 데 이어, 정부경영평가 결과 상향 조정으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이 확정된 지난 2월엔 전 직원이 성과급 일부 반납에 동참하기도 했다.

03



작년 11월엔 경영 위기 조기 극복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사 조직을 20% 축소해 기존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하고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사업소 조직 또한 단계적으로 25% 수준을 효율화하는 조직혁신 계획과 함께 업무의 디지털화·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부지 용도 상향을 전제로 한 인재개발원 매각 이전계획, 한전KDN 지분 일부 매각,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매각계획 또한 포함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高)환율 등의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4분기 불충분한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12월에는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 초과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채 추가발행 불가 시 예상되는 자금조달 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중간 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전 경영진이 그룹사를 방문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력그룹사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총 3조 2천억 원의 중간배당을 시행해 자본을 확대하고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27년까지 누적적자 해소하고,
사채발행 배수 2배 이내로 관리해야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11분기 만에 영업흑자 전환을 이루어 냈지만, 장밋빛 미래만을 그릴 수는 없다. 지난 3년간 대규모의 영업손실로 누적된 적자는 47.8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차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

또한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장기화되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재반등할 위험도 크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달성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사채발행한도를 당초 2배에서 5배(최대 6배)까지 확대한 한전법 개정 조항의 일몰 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이는 2027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사채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관리해야만 향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지속 가능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가 자구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통해 경영정상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각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관행적인 비효율 요인을 타파하고, 신규 수익을 창출할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한전의 재무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위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마음으로 모아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자.

한전은 한 세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30년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면서 전력사(電力史)의 큰 궤적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전통적인 전력공급 사업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지 못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는 글로벌 전력산업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었다. 이에 2018년 7월, 한전의 변화를 주도할 ‘디지털변환체’를 발족했고, 현재 ‘디지털전환실’에 이르기까지 한전 ‘디지털전환(DX)’의 대장정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KEPCO 데이터 통합플랫폼’ 디지털전환의 기틀을 다지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사내 업무를 효율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디지털솔루션이 필요하다. 좋은 디지털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Garbage in Garbage out)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도구(Tool)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한전에는 267종의 업무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건수는 약 3.3조/년 건이다.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그간 데이터 표준이 부재하고(시스템 간 데이터 명칭, 형식 등 불일치) 품질 관리가 미흡(오류 값, 결측

값 존재)해 분석에 활용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았다. 이에 2019년 6월 ‘전사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해 전력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향상의 물꼬를 텄고, 2021년 2월 고품질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제공할 수 있는 ‘KEPCO 데이터 통합플랫폼(KDP)’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사내 데이터 뿐 아니라 사외 공공데이터 418종도 수집해 저장하고 있으며 현재 총 254TB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AI 개발 플랫폼’을 탑재했으며 파이썬 등 AI 개발·분석 관련 S/W를 제공하고 있다.



사내 업무 디지털화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전환실은 빅데이터와 분석·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전력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랩과 협업해 회사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다수 개발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96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현업에 적용해 누적 5,350억 원을 절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생e 발전량을 예측해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지원하는 ‘재생e 발전량 예측 시스템’, 고객별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는 ‘전력 다소비 고객 대상 에너지 컨설팅 모델’, 송전설비 피해를 예방하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송전선로 풍속 예측 모델’ 등이 있다. 디지털전환실은 앞으로도 전사 협업을 통해 현안 중심의 디지털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현장 업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전환실과 데이터사이언스랩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실무 부서에 전진 배치해 현장의 명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사외 디지털 서비스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

한전은 사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용 서비스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이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전력과 통신(SKTEL, KT) 데이터

를 융합해 1인가구의 사용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약 3천 명의 1인 가구를 돌보는 데 사용 중이고 지금까지 11건의 위기 상황을 감지해 응급 구제하는 데 기여했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는 고압 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고조파, 역률 등 다양한 전기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상 변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을 예측(전력기상지수, 기상청 협업)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현재 고압 고객 약 5만 호가 가입 중이며,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평점 4점 이상으로 실사용 고객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민원 업무 디지털화 확대도 추진 중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과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시범 적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앞으로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고객 접점 부서의 업무 효율을 혁신(Paperless, 수기 오류 Zero 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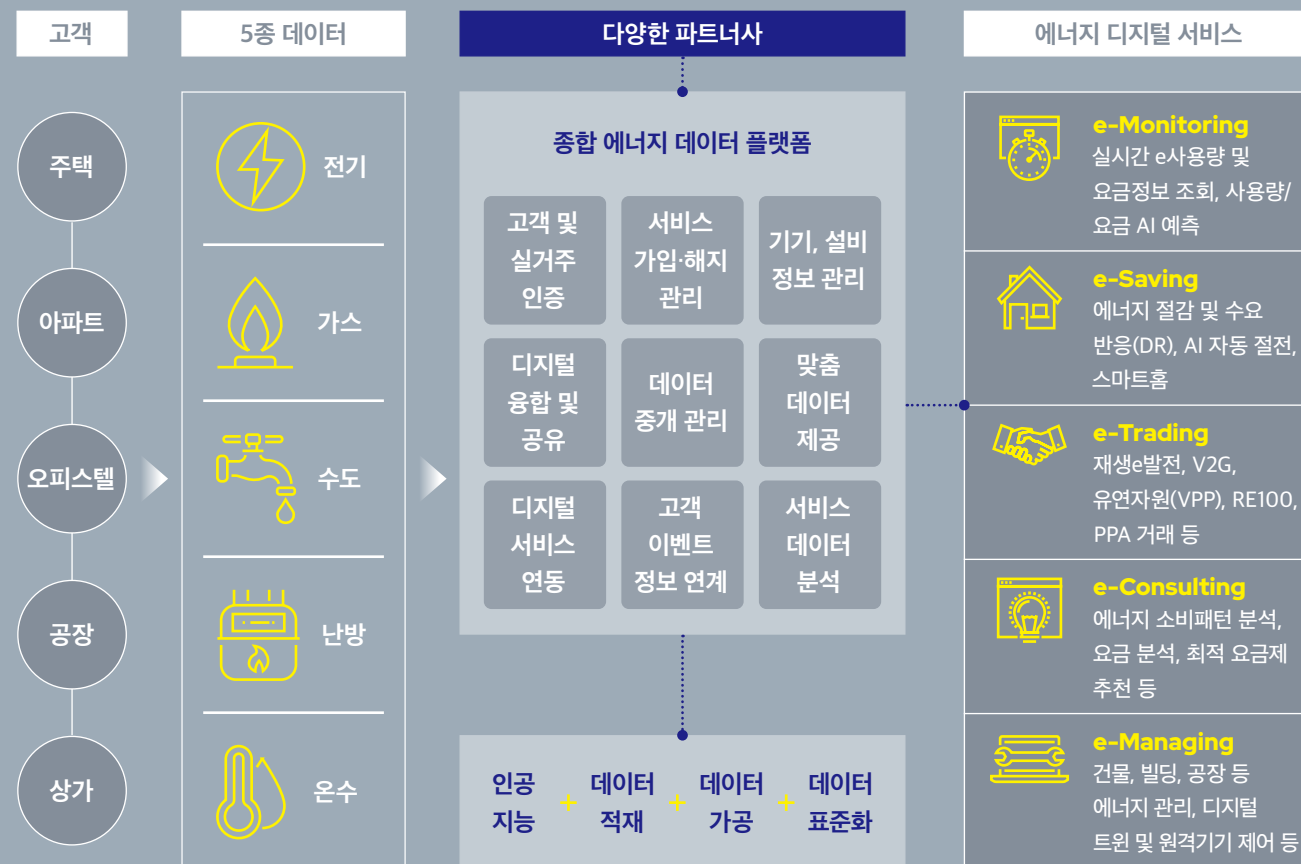


KEPCO 디지털전환의 미래 Total Energy Data Platform Provider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전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혁신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업역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에 디지털전환실은 한전이 전력 분야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에너지 데이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Total Energy Data Platform Provider)’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전의 플랫폼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연결·융합하고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신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한전 디지털전환(DX), 비용 줄이고 국민 편익 증진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단위 분산에너지의 시대를 연다!

배전계통사업실 TF를 만나다



전력공급 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획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할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배전망 운영과 제도 변화 등 회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이름하여 배전계통사업실 TF이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오는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법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은 전력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수요지로 수송해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이다. 전력 생산은 지방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에너지자립도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은 장거리 송전설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건설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 지역 가까운 곳에 발전원이 설치되므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양광, 풍력, ESS 등의 설비로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원을 분산화해 중앙계통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4장), 배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배전망 관리역할 부여(5장),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6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7장), 통합발전소(VPP)제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시행근거(8장) 등이다.

분산법의 핵심은 지역내 생산된 분산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여 송전설비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분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분산화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분산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전기사용 신청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송전설비 포화지역일수록 계통영향평가의 통과가 어렵게 된다. 또한 지방의 전력자립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도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 도시개발사업자는 전력 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자립화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안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도 분산법에 포함되었다.

이밖에 통합발전소(VPP)도 분산법을 통해 본격 도입된다. ESS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섹터커플링을 접목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한 V2G제도를 통해 유연자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은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합발전소이다.

새로운 역할을 책임질 배전계통사업실 출범하다

분산법이 시행되면 배전망에 많은 분산에너지가 접속되어 한전도 단순 전력공급자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배전망이 전력소비를 위한 물리적 공급망 역할에서 지역단위로 전기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밸런싱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에게도 지역별 배전망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배전망운영자로서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망운영을 수행하며,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감시·제어를 위한 인프라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투자비 절감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新배전망운영기술 개발과 분산전원



을 활용하여 배전망 증설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유연자원시장 다각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분산법 시행에 따른 배전망 변화 요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전계통사업실이 출범했다. 배전계통사업실은 양승호 실장을 필두로 계통전략담당과 DSO(배전사업망)운영담당으로 나뉜다. 이들의 임무는 분산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긴급한 현안 제도를 설계하고 안정적 배전망 운영을 위한 배전망운영자 기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은 장기배전설비계획, 배전망 운영규칙, 중립성 가이드라인, 망 관리 및 운영체계 등 법 의무이행을 위한 면밀한 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이들은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달려왔다. 첫 발자국이 뒤에 따라올 이들의 이정표가 되기에 눈 덮인 길을 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던 임연당의 시처럼, 이들의 신중한 걸음걸음이 분산법 시대에 주도적인 배전망 운영 주체로서의 한전의 역할에 이정표가 될 터이다.



계통전략담당



DSO(배전사업망)운영담당

따뜻한 봄기운이 세상을 채워가는 3월 11일.
하지만 아직도 이곳은 한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다. 강원도의 상징 도시 태백.
해리포터가 킹스크로스역의 9와 3/4
승강장으로 들어가 마법의 세상으로 간 것처럼,
강원도 고한과 사북을 지나 열차가 태백역으로
들어서자 세상은 다시 겨울 속으로 들어온 듯
는 세상이다. 봄이 문턱을 넘으려 기다리고
있는 태백을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지켜가는
태백전력지사 사람들을 만났다.

책임감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함백산 정상 인근 철탑을 향해 오르는 이들의 뒷모습이 결연하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도착한 154kV 철탑 앞. 둥그렇게 모인 이들은 태백전력지사 송전팀 직원들과 한전 KPS 직원들. 안전 수칙을 꼼꼼히 숙지하고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철탑에 오른다.

목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걸고 허리춤에는 몸을 고정할 안전장구를 걸고 거침없이 철탑을 오르는 한전KPS 안상용 조장. 그의 움직임에는 쌓인 세월만큼의 연륜이 묻어난다. 생명을 건 철탑을 오르며 철탑에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이들의 예방 점검 활동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밑바탕이 되어 왔다.

함백산은 강원 정선군 고한읍과 태백시의 경계에 선, 태백산보다도 7미터가 높은 1,572미터의 높은 산이다. 겹겹이 능선으로 이어져 굽이마다 눈을 품은 함백산은 포근하고 평화롭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산도 누군가에게는 안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함백산 송전선로 점검을 위해 오르는 중
만항재에 모인 태백전력지사 사람들.

하늘 아래 첫 도시 태백의 빛을 지키는 사람들

태백전력지사



안상용 조장이 함백산 정상
인근의 철탑에 올라 선로를
열화상카메라로 살피고 있다.

Protect the Light



안전관리현황판을 보며 안전사항을 살피는 주상열 팀장(우)과 심규보 사원(좌).

“점검을 위해 철탑에 오를 때마다 늘 긴장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사고는 곧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철탑에 오르기 전 안전 회의를 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안전’을 상기하고 오릅니다.”

선로 점검을 함께하는 한전KPS 김진기 선임과장이 담당하지만 의지가 배어나는 목소리로 답을 한다.

“태백시를 비롯하여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그리고 경북의 울진군까지 관할지역으로 둔 태백전력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 950미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는 철탑 861개와 610.14c-km의 송전선로를 관리하고 있지요. 또 국가 중요설비인 765kV 신태백 S/S와 T/L 운영도 함께 하면서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11%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설비 중 765kV 신태백변전소는 해발 950m의 대덕산에 세워졌고, 154kV 태백 T/L은 1,383m의 함백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사 관할지역 대부분이 험한 산악지역으로 겨울철 빙설해를 비롯한 강풍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상열 송전팀장이 관리의 난이도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겨울철 설비 관리가 녹록치 않음에도 완벽한 전력공급으로 올 1월 끝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다. 자부심이 묻어날 만큼의 성과였다.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 더욱 가슴 조이며 점검에 혼신을 쏟았지요. 하지만 선로에 쌓인 눈이 강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발생하는 고장을 모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력을 긴급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에 얼어붙은 눈을 제거하며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날씨는 매섭기가 상상을

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얼굴을 에는 추위를 뚫고 철탑에 올랐던 송전팀 최지원 사원이 말을 잇는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란 책임감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태백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들은 전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켜내는 완벽한 전력공급

주상열 팀장을 비롯한 12명으로 구성된 송전팀은 일상적으로 송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나 설비별 취약점을 꼼꼼히 정리하며 관리한다. 대부분의 설비가 산악지역에 있어 이동과 접근이 쉽지 않지만 취약한 부분은 사전 예방정비 활동으로 한 번 더 챙긴다. 설비불량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이 한 걸음 더 먼저 살피는 것이다. 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불편함 없는 완벽한 전력공급으로 돌아온다는 보람이 이들의 고된 하루를 어루만지고 있을게다.

“태백은 봄이 다른 지역보다 45일 정도 늦게 찾아온다고 봅니다. 그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이 되어도 우리는 또 다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봄이 되면 불청객 산불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겨울이면 눈으로 발생하는 고장을 걱정하고, 봄이 되면 산불 예방이란 또 다른 전쟁과 맞서는 이들. 지난 2022년 강원 동해안과 경북지역의 대형 산불은 이들에게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봄바람이 불게 되면 이들은 바람이 많고 건조한 봄철의 선로 산불 고장 제로화를 위해 미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캠페인, 산불지연제 확보,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며 안전한 전력 공급에 힘을 쏟는다.

기나긴 겨울이 물러나고 봄의 전령이 태백산맥을 넘어온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긴 겨울, 많은 눈과 추위가 기본인 태백의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 맛을 준비를 하는 태백전력지사. 혹독한 겨울과의 싸움을 끝내고 봄 산불 예방 활동 준비에 바쁘다. 힘든 기후환경을 이겨내고 태백의 빛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오늘도 함백산을 오르는 이들의 뒷모습이 봄을 머금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다.



철탑에 오르기 전 안전회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폭폭 빠지는 눈길을 뚫고 함백산 송전철탑으로 오르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태백전력지사.

봄바람에 마음이 살랑이는 계절이다. 많은 사람이 짧은 봄을 즐기기 위해 봄꽃 명소로 나들이를 떠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쓰레기다. 그저 눈살을 찌푸리기보다 직접 나서서 쓰레기를 주워 보자. 깨끗해진 만큼 봄꽃이 더욱 화사하게 빛날 것이다.

전북본부 직원과 함께하는 ‘봄꽃 맞이 플로깅’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플로깅’

플로깅(Plogging)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으로,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친 신조어다. 즉, 달리는 동안 눈에 띄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준비물 없이 쓰레기를 담은 봉투와 장갑, 집게 등만 챙기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플로깅에 동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플로깅을 위해 준비한 위생장갑과 물티슈 등도 결국 쓰레기가 되므로 가급적 재사용이 가능한 장갑, 손수건 등을 사용한다. 둘째, 플로깅은 일반 조깅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플로깅은 무엇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주운 쓰레기를 완벽히 분리배출하는 것까지 끝내야 진정한 플로깅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만개할 봄꽃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할 때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억 6283만 톤을 기록한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억 8149만 톤으로 11.5% 늘었고 2020년엔 1억 9546만 톤으로 7.7% 증가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7억 2700만 톤을 기록한 후 2019년 7억 100만 톤, 2020년 6억 5700만 톤, 2021년 6억 8천만 톤 등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환경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분리배출된 페트병은 스포츠 의류 등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유리병과 캔은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하거나 섬유원료, 철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유리병과 페트병, 캔이 재활용된다면 연간 88kg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 방법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이다.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이나 음식물 등은 닦거나 행군 다음 라벨 등의 다른 재질을 분리해야 한다.



쓰레기를 주우며 ‘플로깅’을 만끽하고 있는 전북본부 직원들.

봄꽃이 필 자리를 청소하는 시간

전주 완산공원에 전북본부 직원들이 모였다. 전략경영부 박진희 사원, 전략경영부 김채은 대리, 요금관리부 오미지 사원, 재무자재부 오연재 대리, 재무자재부 박영서 사원, 요금관리부 김은채 사원이 '봄꽃 맛이 플로깅'에 나선 것.

“전주 완산공원은 철쭉꽃이 가득해 ‘꽃동산’으로 불려요. 아직 꽃이 피기는 이르지만, 미리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서 꽃이 필 때쯤 더욱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사원의 각오가 담긴 한 마디와 함께 완산공원 플로깅에 나섰다. 하얀 장갑을 끼고 생분해 봉투와 대나무 집게를 들고 있는 전북본부 직원들의 얼굴은 사뭇 진지했다. 완산공원 꽃동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시원한 삼나무 숲을 걸을 수 있는 완산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얼핏 보기에 산길은 깨끗했지만, 집중하는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 쓰레기가 많아요!” 누가 보면 보물이라도 찾은 것 같은 기쁨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희 사원의 목소리였다. 산길보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정자 아래에 과자 봉투나 물병 등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었다. 다들 쓰레기를 줍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삼나무 숲길을 올랐다. 꽤 가파른 구간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올랐다.

3월 중순 봄별은 따뜻했지만 삼나무가 울창한 숲은 아직 서늘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줍는 직원들의 머리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장군봉 팔각정에 도착해 서야 다들 한 숨 돌릴 수 있었다.

“쓰레기가 별로 없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숨어 있는 쓰레기가 많네요. 주차장에 쓰레기 통도 있던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실수로라도 버리지 않도록 신경쓰면 좋겠어요.”

장군봉 팔각정에서 완산공원의 ‘철쭉꽃 보러 가는 길’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다. 붉은 철쭉으로 가득할 길을 보며 직원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서렸다. 생각보다 짧은 플로깅이 아쉬워 청연루로 이동했다. 전주천이 흐르는 남천교 위에 있는 청연루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전주천 산책길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플로깅을 마무리했다.

“쓰레기를 치운 만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든 만큼 동료들과 자주 플로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로깅 활동 중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플로깅 TIP**

❶ 시작 전 스트레칭 잊지 말자.

플로깅도 운동이다.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자. 미리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근육통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조강할 때 사용하는 손·발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❷ 쓰레기 주을 땀 허리가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플로깅을 하며 쓰레기를 주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허리가 아닌 하체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을 때 허리를 잘못 구부리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허리는 똑바로 펴고 고관절과 무릎을 굽혀 스쿼트나 런지 자세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좋다. 이때 다리 근육만 사용하면 무릎 앞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❸ 빠르고 크게 움직이기

플로깅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크고 적극적인 동작으로 플로깅을 할 때 운동 효과가 더욱 커진다.

mini interview



김채은 대리 • 전략경영부

2년 전에도 플로깅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2년 전보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기분 좋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지 사원 • 요금관리부

카페에 갈 때마다 텀블러를 챙겨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처음이었는데, 주변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한걸 깨끗해진 공원을 보니 앞으로 더 환경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희 사원 • 전략경영부

본부 ESG 활동으로 회사 뒤 건지산에서 플로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느꼈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생각보다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줍고 잘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박영서 사원 • 재무자재부

지구도 지키고 동료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평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 외에도 ‘एको백 만들기, 에너지 없이 살아보기’ 등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채 사원 • 요금관리부

플로깅을 하며 주운 쓰레기를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플로깅 활동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탄소 식단으로 하루 동안 생활하기, 대중교통만 이용하여 생활하기 등의 활동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연재 대리 • 재무자재부

플로깅은 처음이라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힘든 것 보다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자주 플로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마음,
봄꽃처럼 피어나는 설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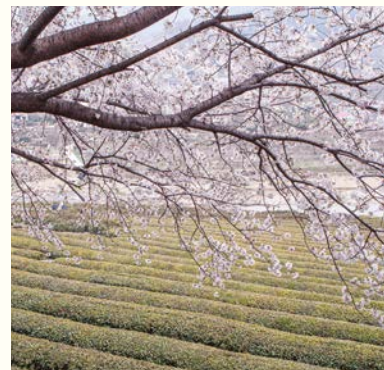
스치듯 지나가는 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길.

짧은 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봄꽃 명소

봄이 왔다. 화엄사 홍매는 이미 자줏빛 꽃망울을 터뜨렸고, 머지않아 남도 섬진강 자락에서는 곧 연분홍 벚꽃이 앞다투어 피어날 것이다. 아차 하면 도망가 버리는 이 땅의 봄. 짧다고 탓하지 말고 서둘러 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일이다.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가볼 만한 봄꽃 여행지를 소개한다.

연인 가족 친구



하동 쌍계사 벚꽃길



여수 오동도와 거문도



보은 법주사

천상의 야생화 트레킹

강원도 태백 두문동재 입구. 해발 1,268m. 웬만한 산 정상과 맞먹는 높다. 흔히 쓰리재라고도 부른다. 봄이면 피나무이며 개별꽃, 홀아비바람꽃, 산괴불주머니 예쁘고 다정한 우리 봄꽃을 맘껏 볼 수 있다. 정상에는 '백두대간 두문동재'라는 표지석이 서 있는데, 표지석 옆 산불감 시초소의 차량차단기를 넘어 금대봉으로 가보자. 머리 위로는 푸른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찬란한 봄 하늘이 펼쳐지고, 길은 평탄하고 폭신평신향 걸기 좋다.

동백 밟고 다산의 흔적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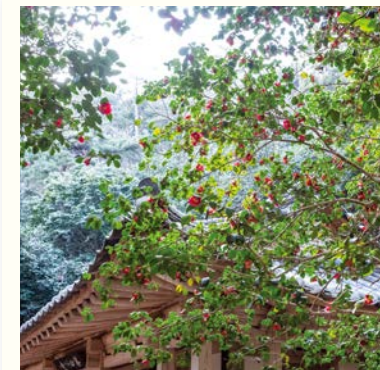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강진으로 유배를 온 다산은 1801~1818년까지 강진에 홀로 남겨졌다. 강진읍성 동문 밖 주막집에 머물던 다산을 곤궁히 여긴 해남 윤씨 일가가 초당을 지어주어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다산초당이다. 다산초당 가는 길은 기분 좋은 숲길. 특히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은 놓치기 아름다운 코스다. 백련사는 7,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 지금은 땅에 핀 동백으로 가득하다.

복사꽃 만발한 무릉도원

헐거워진 땅에 들풀이 번져가는 4월이면 영덕에 복사꽃이 피어난다. 안동에서 영덕으로 넘어가는 국도 34호선을 타고 가다 황장재를 넘어서면 지품면에 닿는다. 여기서부터 복사꽃밭이 시작된다. 강변의 평평한 밭고랑은 물론 산비탈의 계곡까지 연분홍 복사꽃이 가득하다. 오십천을 따라 늘어진 복숭아밭이 마치 물결처럼 굽이친다.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에 잔뜩 붙어 있는 모습은 환상적이다.



태백 분주령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



경북 영덕

벚꽃 터널 걸으며 마음은 만발하다

하동의 봄은 3월, 매화가 피면서 시작한다. 하동 봄의 절정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십리길에 벚꽃이 환하게 필 때다. 하얀 눈처럼 혹은 솜뭉치처럼 풍성하게 피어난 벚꽃은 깊고 찬란한 터널을 이룬다. 벚꽃길은 '흔레길'로도 불리는데,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이 길을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뤄지고 영원하다고 한다. 봄날 하동 여행에서 차 마시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은은한 햇차 한 잔이면 봄이 마냥 평화롭기만 하다.

붉은 동백은 푸른 바다 위로

오동도, 38,000여 평의 조그마한 섬이지만 그 속은 별천지다. 동백나무 4,000그루와 200여 종의 상록수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다.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약 2km 정도 이어지는데 한려수도의 빼어난 바다 풍광과 어우러져 근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다른 꽃 마중 장소는 거문도다. 동백이 천지로 핀 숲은 제 목을 꺾어 떨어진 동백이 누군가 일부러 흩뿌려 놓은 것처럼 낭자하다.

울창한 숲길 끝 만발한 벚꽃

4월 초면 법주사 일대에 벚꽃이 화들짝 피는데, 절 초입에 자리한 '오리숲'부터 이어진다. 수령 100~200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떡갈나무, 참나무가 넉넉하게 자라는 이 숲은 숲의 길이가 '5리'에 이른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매표소에서 법주사까지 약 2km 정도 이어진다. 걷기에 좋아 유모차를 밀고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구간이다. 어린 자녀와 함께 냄새 짙은 숲길을 걷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Tip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봄꽃 명소

1. INSTAGRAM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의 피드는 이미 봄으로 가득하다. 봄꽃 축제부터 봄 나들이 여행지 추천까지, 아름다운 봄꽃 명소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4월 20일 시작하는 불암산철쭉축제와 군포철쭉축제를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자.



2. YOUTUBE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채널은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 올라온 '[UHD] 4대 궁궐 봄꽃 풍경 콘텐츠(종합편)'은 서울의 4대 궁궐에 화사하게 핀 봄꽃의 향연을 선사한다.



당신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인의 불안장애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차오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내용이다. 기업의 규모나 직위를 떠나 불안 증세를 겪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바쁜 업무로 힘든 직장 생활, 불안 장애가 의심된다면 지금 확인해보자.

Check List

1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한다고 자주 느낀다.	☐
2	쉽게 피곤해진다.	☐
3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자주 있다.	☐
4	과민해지는 일이 자주 있다.	☐
5	몸이 긴장하는 일이 자주 있다.	☐
6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	☐

* 범불안장애는 대표적인 불안장애 중 하나다. 범불안장애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일 때 진단한다. 스스로 불안과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6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범불안장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범불안장애일까?



출근길이 답답하고 불안한 직장인들

최근 점점 심해지는 불안 증세로 고통을 토로한 직장인 A 대리. 그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상사에게 보고를 할 일이라도 생기면 긴장이 되고, 현기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제는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보고할 일이 생기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흔히 ‘불안장애’라고 하던데, 저도 불안장애가 생긴 걸까요?”라며 갑갑한 심경을 드러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발표자를 맡게 되었던 B 과장은 “발표를 듣고 있는 상사와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 차갑고 건조하게 보여서 ‘혹시 내 발표가 형편없었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발표를 하는 중에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덜덜 떨렸다고 그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허둥지둥 하면서 발표를 마쳤지만 오후에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긴장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중요한 업무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C 대리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상사에게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던 중 부주의하게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10개의 업무 중 8~9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그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 중 1~2개에게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언성을 높이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 어드바이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밤에 되면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주 작성해야 하는 업무 보고서, 출근하면 듣게 되는 상사의 질책, 회의 발표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을 떠올리면,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한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지내지 못하고, 의무와 책임이 많은 공간이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따

라서 직장 출근을 떠올릴 때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을 수정하면, 월요일의 시작이 조금 더 유쾌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 먼저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경우 ‘혹시 내 발표가 형편없었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불안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사고로 수정해보면 어떨까? ‘다들 월요일 오전에 시간에 맞춰서 발표장에 오느라 피곤했나 보다. 집중해서 듣느라 표정이 다들 긴장되어 보이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침착하고 여유가 생긴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어. 이번 승진에서 낙락되면 어쩌지? 혹시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책을 심하게 할 수 있고, 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승진에서 낙락되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는 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결재를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면 잠깐 스트레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차차 회복될 수 있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고,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일상을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모호하고 중립적인 단서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신호로 인지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항상 과도한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 지나친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휴식과 재충전으로 긴장을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승진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수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항상 불안감과 가까이에 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압박감 없이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같이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상생활 루틴이 필요하다.



WIDE

KEEP

THE WORLD

MOVING

세상을 움직이는 길을 찾다

‘톰톰’의 비결

유럽 내비게이션 사업 1위, 톰톰(TomTom). 구글 맵 등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을 대체하며 잠시 길을 잃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저물어 가는 영광의 시대를 마주하다

톰톰은,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개인용 내비게이션 장치(PND)를 2004년에 세계 최초로 내놨다. 당시는 도로 곳곳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 운전사가 아니면 도로 지도책을 독해하며 길을 찾아가던 시절이다. ‘지도를 잘못 읽었네, 제때 진입을 못 한 거네’하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실랑이하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차분한 음성 안내가 흘러나오는 ‘톰톰 고 (TomTom GO)’에 매료되었고 톰톰의 매출은 5년 사이에 약 500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44배나 급등했다. 톰톰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노키아가 지도 업체를 인수해서 휴대폰에 지도를 넣는 걸 목격한다. 당시 휴대폰은 화면이 작아서 노키아가 원하는 만큼의 파괴력은 없었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톰톰은 또 다른 지도 업체인 텔레아틀라스를 2008년에 인수했다. 내비게이션 장치뿐만 아니라 무선단말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 지도를 공급하면서 경쟁 업체를 따돌렸다.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였다.



톰톰은 로드DNA라는 고화질 지도를 통해 도로상에서 자동차의 위치를 5cm의 오차 범위 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글, 이용수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사진, 톰톰 홈페이지

그러다 애플이 1세대 아이폰 후속으로 GPS를 탑재한 아이폰 3G를 2008년 7월에 출시한다. 큰 화면에 공짜 내비게이션 앱을 갖춘 아이폰은 내비게이션 장치를 빠르게 대체해갔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다행히 톰톰에는 구글이라는 가장 큰 고객이 있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위해 톰톰의 지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쁜 예감은 비켜가지 않는 법. 구글은 자체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고 2009년 10월에 톰톰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구글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내비게이션 앱을 번들로 넣었고 개발자들이 지도 API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내비게이션 장치도 지도도 공짜인 세상이 되었다.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톰톰은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고 주가도 75유로에서 3유로 대로 급락했다. 톰톰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산으로 보는 회사들에게 먹혔다. 이들은 구글 대신 톰톰의 지도를 선택했다. UPS, 트랜스어반, 도이치 포스트 등의 물류 회사도 자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톰톰의 지도를 선택했다.

톰톰은 구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 스마트폰에서 쓰는 일반적인 지도는 흔해져 톰톰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때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회가 보였다. 자동차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스스로 돌아다니려면 기동, 가드레일, 차선까지 세세한 정보들이 빼곡한 고화질 지도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톰톰이 그동안 쌓은 공력으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분야였다.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구글, 애플 같은 거대 IT기업은 걸끄럽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장악해서 알짜배기 먹거리는 다 가져갈까 봐서이다. 톰톰은 2015년부터 자율주행 시장에 큰 돈을 투자했다. 지도 자체의 품질에 올인했다. 2019년 9월 당시 톰톰의 자율주행 책임자는 ‘고화질 지도를 공급받을 업체를 결정한 자동차 제조사 중에 상위 10개 회사가 톰톰을 선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톰톰은 구글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지만 2024년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건재하다. 그 비결은 ‘톰톰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다. 톰톰의 CEO는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냈다. 하드웨어 제조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확장이 용이한 지도 제작에 뛰어들었다. 공룡기업의 초토화 움직임에 기죽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구글이 데이터를 무기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위협이 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파트너들을 찾아냈다.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명확히 포기했고 상호보완적으로 윈윈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틈새시장 방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다

사실 구글은 톰톰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다. 구글은 장치나 지도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광고를 띄우고 사용자 위치, 이동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타깃 광고에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톰톰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구글이 막대한 현금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생태계 곳곳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회사들과 동맹을 만들어갔다. 톰톰의 CEO는 지도 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에 팔지도 않을 것이고 고객들의 사업 분야를 넘보지도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톰톰의 입장 정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버같이 데이터를 핵심 자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기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 한 편에 대한 대담을 통해 업무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이 이야기 나누는 'Talk' 시간. 총북본부 직원들과 티모시 살라메 주연의 SF영화 <둔: 파트2>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PANEL

이지훈 대리
총북본부 안전재난부

재난 영화를 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이지훈 대리. <둔: 파트2>가 또 다른 인생 영화가 될 것 같으며 군 제대 후 복직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예진 대리
총북본부 전력협력부

이예진 대리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영화광. 예고편만으로도 흥미를 갖기 충분한 <둔: 파트2>를 직원들과 함께 보고 소통하는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그녀는 'Talk'와 같은 코너가 많아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승경 대리
총북본부 에너지효율부

조조영화를 위해 달콤한 주말 늦잠도 포기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 자칭 영화 마니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가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고 싶었다는 그는 'Talk'를 통해 화제작 <둔: 파트2>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허지향 대리
총북본부 진천지사

평소 SF영화를 좋아했기에 <둔: 파트2>는 개봉날도 손꼽아 기다렸다는 허지향 대리. 영화를 감상하고 내용을 곱씹어보거나 감상평을 작성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Talk'를 통해 회사 일과 접목해 영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

이지훈 감사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한데도 소명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하고 저절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같은 일을 할 때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확인 절차를 고민하는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가설을 세워보고, 최상의 결과를 상상한 후 실천하게 되니까요. ”

I see possible futures all at once, and in so many futures, our enemies prevail, but I do see a way. There is a narrow way through.

모든 가능한 미래들이 한번에 보여, 너무 많은 미래들, 수 많은 미래에서 적들이 승리하지만, 길이보여. 우리가 승리하는 좁은 길. - 폴 아트레이데스

“

이예진 항상 '책임자, 관리자의 마인드로 생각하자'고 되뇌입니다. 업무 지식이 부족했던 신입사원 시절,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앞뒤 내용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지 못했고, 업무 처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저는 물론, 모두가 힘들었거든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다 깔끔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에 앞으로는 '관리자 마인드'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이고 싶습니다. ”

Maybe you can be Fremen. Maybe I'll show you the way.

넌 프레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 차니

“

허지향 신입사원 시절, 부장님께서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업무 관련 스터디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셨어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해야 하는 일하기에 사실 귀찮은 면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부장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한 번 해보기로 맘 먹고 동기들끼리, 선배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스터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 업무의 기초와 기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부장님, 스터디하며 도움 주신 선배들이 기억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
이 모든 것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저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은 선택의
승 순간에서 제 선택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서 ‘이게 맞나?’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롯이 저의
경 선택으로 앞으로의 일어나는 일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원하던 순간이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웃음) ”

The moment you prayed for your whole life could be right now.

그대가 평생 기도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다. - 폴 아트레이데스

“
허 신입사원으로 처음 맡은 업무가 지장 전주, 신규 접수 등을 하는 창구 업무였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지 무서워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두려워했기에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걱정됐어요. ‘어쨌든 해야
향 하는 일이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또 할 만하더라고요.
오히려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듣고 업체와 소통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첫 업무 시작부터 알 수 있어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You must not fear. Fear is the mind-killer.
Fear is the little-death that brings total obliteration.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고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 - 레이디 제시카

“
이 저는 입사 첫 업무가 사업소 총무였어요. 전임자분에게 딱 하루 업무
예 인수인계를 받고 혼자 업무 처리하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진 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메모하느라 통화 내용을
파악할 새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찔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지침 및
규정을 익히고 업무를 이해하니 어느새 발전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

Don't try to impress anyone. You're brave, we all know that.
Be simple, be direct. Nothing fancy.

**사람들에게 잘보이려고 노력하지마.
네가 용감한거 모두가 알아.
간단하고 확실하게 해. 멋부리지 말고.** - 폴 아트레이데스

“
이 주인공 폴이 예언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괴로워할 때, 차니가 건네는 말이 굉장히
승 크게 와닿았습니다. ‘너 자신으로 남으라’라고 말하는 차니는 어떤 심정이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 폴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나답게 살자, 나답게’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난 어떻게 나로 남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듯했습니다. ”

You will never lose me as long as you stay true to yourself.

네가 너 자신으로 남는 한 난 절대로 안 떠나. - 차니

“
이 지혜와 정치를 대표하는 베네 게세리트 대모가 희망하지 않고 계획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지 인상깊었습니다. 무작정 행복을 희망하는 것보다 행복을 위해 계획하고 달성하는 것이
훈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We're Bene Gesserits. We don't hope. We plan.

**우린 베네 게세리트다. 우리는 희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획한다.** - 가이우스 헬렌 모허암

“
허 <둔: 파트2>를 보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향 하는 선배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주인공 폴 무아답처럼 모든
한전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I'm not leading you, I'm here to learn your ways. Let me fight with you.

**당신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방식을 배우러 왔어요.
함께 싸우게 해줘요.** - 폴 아트레이데스

“
이 회사는 각자의 뛰어난 역량도 중요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예 폴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과 어머니를 프레멘 족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진 회사 생활도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함께 일을 하는 한전인이야말로
정말 멋진 한전인이 아닐까요? 모든 한전인들에게 <둔: 파트2>를 추천합니다. ”

‘슛~ 골인!’

온몸을 감싸는 카타르시스, 풋살

요즘 여자 연예인들이 풋살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 덕분에 풋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호기심에 공을 찼다가 풋살에 중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풋살의 어떤 매력 때문일까?



풋살은 말이죠!

풋살은 FIFA에서 공인한 실내 축구의 한 형태이다. 골키퍼를 포함한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이 축구장보다 작은 경기장에서 풋살 공으로 득점하는 스포츠이다. 국제 경기는 잔디 풋살장이 불가한 실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취미로 풋살을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풋살장은 인조 잔디 실내의 구장이다. 보통 전후반 20분씩 진행되며 선수 교체의 제한이 없어 다양한 선수들과 다양한 전술로 뒤흔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가 진행되어 기본기, 개인기, 정교한 패스, 빠른 상황 판단 능력, 공간 창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 축구 선수들이 풋살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풋살이 좋은 이유는

풋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골’이라는 성과를 빠르게 맛볼 수 있고 소속팀에 대한 기여도를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다. 나의 패스가 골로 연결될 때의 성취감은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불러온다. 또한 풋살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이다. 2~3만 원 풋살화 하나와 편한 옷만 입고 나가면 어떤 풋살팀에서도 공을 찰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축구와 비슷하지만, 축구와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 풋살은 골키퍼를 제외하고 공격과 수비의 경계가 없어 40분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한다. 상당한 운동량도 풋살의 매력이다. 또한, 축구(22명)보다 적은 사람들(10명)이 모여서 공을 찰 수 있다는 점과 축구장보다 구장이 작아 좁은 도심 속에서도 쉽게 풋살장을 대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나의 구력은

2002년 월드컵을 보고 공을 차기 시작했다. 축구 선수들의 대단한 활약에 반해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남자 친구들과 공을 찼다.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는 등 마는 등 식판을 치우고 운동장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축구에 미쳐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나주로 전입하면서 축구보다 적은 인원으로 공을 찰 수 있는 풋살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 나주여자 축구동호회 ‘위민FC’와 광주여자풋살동호회 ‘FS도토리’에서 공을 차고 있다.

풋살을 배우고 싶다면!

공이 무서워도 OK! 공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도 OK! 풋살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유소년 교육에 집중하던 축구교실들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강습을 확대하고 있다. 가까운 축구교실의 여성 반에는 이미 나와 같은 초보 of 초보가 많으니 두려워 말고 두드려보자! 기초적인 볼 터치부터 패스 등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워 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나아가 좀 더 역동적인 풋살 게임을 뛰고 싶다면 SNS에서 수많은 여성 풋살 동호회를 찾을 수 있다. 동호회라고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 풋살팀의 경우 초보자 비율이 현저히 높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또래부터 언니, 동생들과 부딪히며 공을 차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풋살을 하는 날만 기다려질지 모른다! 팀원들과의 패스, 움직임으로 나온 골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나온다고 확신한다. 많은 분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 사내 동호회로 여자풋살팀을 창단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한 대리는 달린다.



풋살, 얼마나 알고 있니? 풋살 vs 축구



1. 경기 인원과 시간

5명 전·후반 각 20분씩 vs
11명 전·후반 각 45분씩



2. 경기장

좌우 20m, 상하 40m vs
좌우 68m, 상하 105m

풋살의 국제 경기에서 경기장 규격은 길이 38~42m 사이, 너비 20~25m 사이를 지켜야 한다. 다른 경기에서는 길이 25~42m 사이, 너비 16~25m 사이만을 지키면 된다. 경기장의 천장은 최소한 4m 높이에 있어야 한다.



3. 공

직경 약 20cm의 4호 공 vs
직경 약 22cm의 5호 공

풋살은 보통 축구공보다 작은 규격 4호 공을 사용해서 축구보다 더 빠른 플레이를 보여준다. 경기 규칙은 대체로 축구와 비슷하다. 다만, 축구에 비해 그라운드 규격이 상당히 작고,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와 다른 점들도 다소 존재한다.

포항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철과 빛의 도시로 불린다.
일출이 아름다운 호미곶과
과메기로 유명한 구룡포,
포항을 철의 도시로 인식시킨
제철소와 국내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는
또 하나의 명소다. 포항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안성맞춤인
스페이스워크와 포항을
아름답게 지켜 나가는
북포항지사를 찾았다.

하늘을 유영(遊泳)하며 오늘을 만나다

북포항지사

포항의 스페이스워크. 하늘 위를 걸으며
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형 조형물이다.



1 부쩍 늘어난 일로 바쁘지만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북포항지사 사람들.

2 영일만산업단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직원들.

철과 빛의 도시에서 만나는 우주

포항 북구의 환호공원 언덕을 올라서자 하늘 위엔 유려한 곡선으로 떠 있는 철의 트랙이 모습을 드러낸다. 갑자기 드러나는 조형물은 그 크기와 규모에서 먼저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리고 공중으로 떠 있는 듯한 모습은 다시 놀라움의 대상이다.

하늘을 걷는 스페이스워크. 관람객이 직접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예술과 관객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체험형 조형물이다.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를 유영하는', 혹은 '공간을 걷는'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스페이스워크는 독일계 예술가 부부가 철강 도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려 만든 작품이다. 포스코가 기획 제작 설치해 포항 시민에게 기부한 작품으로 철강 도시 포항에 제법 잘 어울린다.

철 계단을 하나하나 걸으며 내려다보는 포항의 풍경은 봄기운과 함께 더없이 아름답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나 바람으로 흔들리는 계단에 따라 몸은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 더 가깝게 연결된 느낌이 든다. 바로 우주를 걷는 특별한 기분, 그것이다.

우주를 유영한다는 느낌으로 영일만의 일출과 일몰, 제철소의 야경까지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스페이스워크는 벌써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다. 하늘 위에서 포항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스페이스워크는 밤에도 조명과 함께 신비로운 자태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의 역동성에 힘을 불어넣는 북포항지사

철과 빛의 도시, 포항의 전력을 담당하는 북포항지사는 흥해읍에 위치해 흥해읍과 기계, 정하, 죽장 등 6개 면에 전력을 공급한다.

“흥해읍은 ‘항상 바다와 함께 흥한다’하여 고려시대에 흥해(興海)라는 지명을 얻은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북포항지사 이진기 차장은 인근에 이가리 닷 전망대와 청진항 등 아름다운 청정바다가 있고, 최근 영일만항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으로 포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전한다.

“영일만산업단지는 세계적인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되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원전 6기 규모(670MW)에 해당하는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이곳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2017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3년에 비해 고객 세대가 34%나 증가했고, 신규 접수 건수도 332%로 크게 늘었다. 북포항지사의 하루하루가 무척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지사 사람들은 일이 밀려들수록 지사와 지역 전체에 활력이 돈다며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이 차장은 일이 중요하고 많아지는 만큼 구내식당에서는 다른 지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선회와 제철 음식이 나 온다며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인다. 게다가 인근 '서핑 성지'로 불리는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서핑 동호회 활동과 동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몸에 밴 문화까지 자랑거리 가득한 곳이 북포항지사이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제철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포항의 역동성을 담아내고, 전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사와 직원들이 봄기운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



닷을 형상화한 이가리 닷 전망대.

평택지사



♡ Q A

우리 지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한 '펫라운지'를 오픈했다. 고객 상담하는 동안 반려동물이 쉬면서 간식도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게 비치해 두었다. 귀여운 손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우리 지사에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

#평택지사 #펫라운지 #멍냥 #같이_기다려요
#귀여움_담당 #상담이_길어지네 #언제올까

밀양지사



♡ Q A

우리 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 Day를 마련했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고객 응대 요령, 약관 및 세칙 개정 사항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익하면서도 서로 친해지는 알찬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야겠다.

#밀양지사 #스마일_소통_Day #알찬_하루
#고객만족도 #민원고객_현명하게_응대하기

STAR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PA/EP/EMP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집니다. 사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래지사



♡ Q A

깔끔한 환경에서 일이 더 잘되는 법! 우리 지사는 '우리동래 Clean Day'를 시행해 사무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주기적, 계획적으로 정리해서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달의 '베스트 깔끔이'를 선정해 격려하고 부서에 간식을 지원했다. 앞으로 나날이 깨끗해지는 우리 지사를 기대해 주시길!

#동래지사 #우리동래_Clean_Day #베스트_깔끔이
#쾌적한_일터 #미니멀리스트 #맡관부

예산지사



♡ Q A

건강한 한 끼 식사는 보약처럼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우리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에 나섰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는데, 직접 일손을 거들며 많은 것을 느낀 봉사활동이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예산지사 #사랑의_밥차 #독거노인_무료급식_지원
#건강한_한끼 #든든한_마음 #요리왕

인재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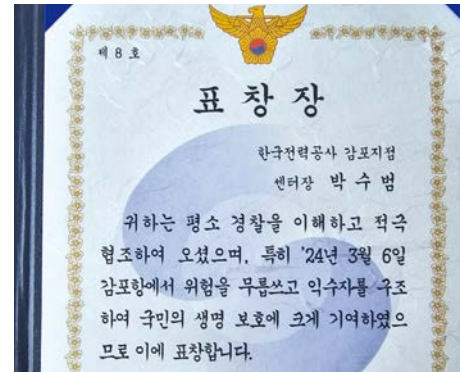


♡ Q A

우리 원은 직군 간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직무 교차체험 시연회를 시행했다. 전주인력오름, 활선차조작 등 타 직군의 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성공 시 과자 복주머니를 선물하며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교차체험 콘텐츠를 발굴해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개발원 #직무_교차체험_시연회 #미션_성공
#서로_이해하기 #복주머니_획득!

경주지사



♡ Q A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숨은 영웅들! 우리 지사 감포서비스센터장은 퇴근 후 감포항을 걷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귀한 생명을 구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경주지사 #감포서비스센터 #경주경찰서
#익수자_구조 #숨은_영웅들 #I'M_HERO

STARGRAM

원고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전력기자재센터



♡ Q A

우리 센터는 겨울철 설비 취약지역에서 콘크리트 옹벽 특별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기후 변화와 노후화에 따른 전력 구조물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 기법과 안전 확보 방안을 고도화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기자재센터 #겨울철설비취약지역
#콘크리트옹벽 #특별안전진단

창녕지사



♡ Q A

우리 지사는 인력오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업자 보호용 '스마트 에어백'을 도입했다. 스마트 에어백은 기존의 그네식 안전대에 경량의 에어백을 결합해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안전장비다. 작업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창녕지사 #스마트_에어백 #인력오름_작업
#안전장비 #안전제일 #안심하고_안전하게

KEPCO NEWS

2024. 04



바라카원전 4호기 UAE 송전망 계통 연결 성공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사 설립된 UAE 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3월 23일 UAE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계통 연결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 및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전력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UAE 원전 4호기는 지난 3월 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약 3주 만에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고, 올해 중 출력률 상승 시험 등 후속 시험을 마치고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라카원전은 UAE 내 전력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4개 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전력을 공급해 UAE 전체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질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4호기 상업 운전까지 UAE 원전의 성공적 사업완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며, 마지막까지 Team Korea가 뚝뚝 뚫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UAE 원전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해 후속 해외원전 수주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원전 수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한-UAE 양국의 원전 협력을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우디·영국 등 잠재적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선정으로 기후변화대응 선도

한전은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CDP 한국위원회 주관 ‘2023 CDP Korea Awards’에서 기후변화 부문 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영국에서 2000년에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노력 등의 탄소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평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23,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에 참여하고 있으며, ESG 평가지표로서 국제적 위상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

한전은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CDP 참여를 통해 탄소경영 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한전의 탄소중립 비전 ‘ZERO for Green’ 선포 이후에는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력 중심의 이행체계와 감축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주기적인 성과점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력 설비 전반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아울러 탄소경영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월에 발표된 기후변화 부문 CDP 보고서 평가 결과에서 Scope1·2·3* 배출량의 투명한 공개, 감축 목표 및 전략,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지배구조 등의 평가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리더십 A-’ 등급을 달성했다.

*Scope1·2·3 : 온실가스 배출원의 산정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Scope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것이며, Scope2·3은 기업 외부와 가치사슬 전체에서의 간접배출을 의미함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행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구매 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지원사업 예산은 750억 원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일반용, 상업용 모두 가능) 4개 품목이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가격의 40%로 지원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상 기간 동안 필수 증빙서류(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사업자등록증, ③기기 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등)를 구비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 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일 9~18시까지는 전화 상담(1551-1212)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활용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5개 영역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데이터 안심구역을 산업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지정받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했고, 행정안전부 품질인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에서는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시장 참여, 대용량 고객 에너지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발전예측 서비스, 전기요금납부 기반 신용평가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한전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선도해 사내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제를 수행했으며, 직원 대상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및 사내외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개설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덴마크 국영 송전사업자 에네르기넷과 기술교류 협약 체결로 전력계통 연계기술 고도화 추진

한전은 3월 6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강당에서 덴마크 국영 송전사업자 에네르기넷과 국내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운영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한국-덴마크 수교 65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덴마크 민간 합동 경제사절단과 2021년부터 맺은 양국 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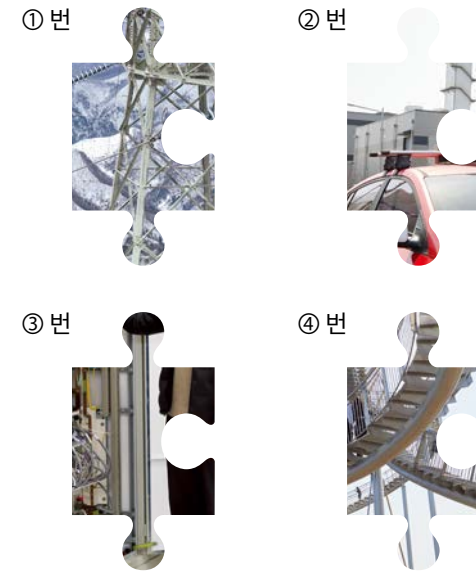
MOU를 통해 한전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덴마크의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및 전력설비 설계경험, HVDC 운영기술, 잉여전력 에너지 저장·전환 기술을, 에네르기넷은 한전의 변전설비 디지털화 및 예방진단 기술을 교류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전은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및 적합성 평가기술을 2025년 12월까지 개발해 해상풍력발전 연계 등 현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01 퍼즐 맞추기 quiz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춰 주세요!
Hint. 44~45쪽 'MAGAZINE P'를 참고하세요.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황*민(6766) 이*솔(1365)
송*주(0426) 이*근(3471)
현*예(7330) 김*면(2023)
최*웅(8482) 강*목(8331)
박*희(4213) 김*범(0190)
강*숙(6159) 황*지(7962)
배*영(3022) 안*호(3466)
정*진(3511) 김*남(5413)
정*철(2995) 전*용(3856)
최*관(0336) 김*나(0276)
장*석(5113) 김*자(3808)
오*태(4898) 배*우(0117)
노*호(5709) 고*섭(1019)
조*현(1356) 성*정(6078)
백*서(2110) 문*기(5855)

03 지난호 정답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